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설립 5주년...“군민 곁에서 제2도약 다짐”

✎ 우정연 기자 | ⓒ 승인 2026.04.02 13:27

기념식·사회공헌활동 병행...최순철 이사장 “공공 책임 다할 것”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설립 5주년 다짐 선언문’ 낭독 [사진=평창군시설관리공단]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우정연 기자] 강원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이 설립 5주년을 맞아 기념식과 사회공헌활동을 병행하며 지난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향한 제2도약을 다졌다.

2일 공단에 따르면 전날 평창지역자활센터와 연계해 지역 조손가정과 다문화가정 아동 7가구를 방문해 아침 도시락 배달 봉사활동을 하며 안부를 살폈다.

이어 평창 치유의 숲 세미나실에서는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5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행사에서는 지난 5년의 주요 성과를 담은 영상이 공개됐으며 최순철 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경영 방향을 제시했다.

또 직원들은 '설립 5주년 다짐 선언문'을 낭독하며 안전·혁신·상생·신뢰의 가치를 되새기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이 설립 5주년 사회공헌활동 [사진=평창군시설관리공단]

공단은 추가로 평창지역자활센터와 연계해 독거 어르신 가정을 찾아 봄맞이 청소와 세탁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직원들은 창문과 바닥을 청소하고 이불을 세탁하는 등 주거환경개선에 힘을 보탰다.

오는 3일에는 평창 치유의 숲 일원에서 평창군 산림과, 평창군산림조합과 함께 왕벚나무 100그루를 식재하는 나무심기 행사도 예정돼 있다.

이번 식재를 통해 연간 약 660kg의 이산화탄소 흡수 효과와 함께 지역 내 벚꽃 명소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순철 이사장은 “설립 5주년을 계기로 기념식과 봉사활동, 연계 행사를 함께 추진한 것은 지역과 함께해 온 시간을 되새기고 공공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미”라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이 설립 5주년 사회공헌활동 [사진=평창군시설관리공단]



우정연 기자 wooj2705@naver.com